# 예배에 실패하는 죄(삼상13:8-15) 11/1/2026

지난 주 메시지는 "기도하기를 쉬는 죄"에 대한 말씀이었다. 이번 주의 메시지는 "예배를 실패하는 죄"라는 제목이다.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들이 아니면 이 두가지 메시지가 이해 안 될 것이다.
기도 안할 수도 있고, 못할 수도 있다. 이유가 어떻든 구원받은 성도가 기도하기를 쉰다면 그것을 죄라고 했다.
**본문도 마찬가지이다. 사울 왕이 예배를 실패한 결과로 인해 하나님은 "그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라"고 했다(14절).**
다음 주에 나누게 될 또 다른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(삼상15:11), 하나님은 그 사울왕을 버리셨다고 했다(삼상15:23). 그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되고, 결국 비참하게 인생이 끝난다.
**예배를 실패했다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가? '무서워서 하나님 섬길 수 있겠냐?' '너무 심한 것 아니냐?' 할 수 있다.**
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배를 실패하고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오면 반드시 그때부터 사단의 공격이 시작되고, 그 자리에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이다. 서서히 치명적인 영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다.
**첫 인생 아담과 하와가 그랬다.** 사단이 와서 뭐라고 속였는가? "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'고 했다(5절).
**인간은 인간과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을 경배하고, 하나님을 기뻐하며, 그 주시는 축복을 누려야 하는 피조물이다.**
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살게 된 것이다(이것이 창3장의 원죄). 그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놓치고 불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?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. 그때부터 인간은 자기 욕심과 타락한 세상과 마귀를 따라가는 인생이 된 것이다(엡2:1-3, 요8:44).
**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가인의 실패도 마찬가지이다.** 첫 인생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할 수가 없었다.
**그것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,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히브리어 "헤세드"의 사랑이다.**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. 그것이 창3:15, 3:21의 복음의 언약이다.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밟고, 그 분의 희생으로 인해 나의 죄와 수치와 저주를 해결하고,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할 길이 열린 것이다.
**아벨은 그 언약을 붙잡고 희생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언약을 놓친 예배를 드렸다(히11:4). 이것이 종교의 시작이다. 내 방법대로, 내 기준으로, 내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이다. 그것이 사단의 속임수가 된 것이다.**
본문에서 사울이 실패한 세가지를 볼 것이다. 거기서 우리는 참된 예배, 성공하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.

**1.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속에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구원의 언약이 있어야 한다.**
**1) 제사장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던 이유가 그것이다.**
구약의 제사장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예표이다. 그 분이 자기 피로 아담의 원죄와 우리 가문의 죄와 내 죄를 영원히 대속하셨다(히9:12). 그 피가 아니면 죄사함을 얻을 수 없고,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(히9:22).
감히 왕이 제사장의 권위를 도전했다는 수준이 아니다. 작은 사건이지만 그 속에 담긴 언약을 놓친 것이다.
**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메시지가 있다. 그것이 언약이다.**
**2)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, 어떤 대적도 우리를 무너지게 할 수 없다.**
그리스도는 지금도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고 했다(롬8:34). '중보한다'는 말은 중재자(딤전2:5), 변호자(요일2:1), 돕는자(요14:16)의 역할을 하신다는 뜻이다. **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인간은 누구나 무너지는 것이다.**
그래서 어느 누구도, 어떤 세력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고 한 것이다(롬8:38-39)
**3) 예배 때마다 그 분의 사랑과 그 분의 은혜를 확인하라.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, 새 힘을 얻으라.**
**그래서 '예배"는 왕이 그 자비의 손을 내밀 때 그 앞에 나가 그 손을 붙잡는 것이라고 했다("프로스쿠네오",영어의 Worship).** 어떤 문제와 실패를 겪는가? 지금, 항상, 매일, 평생, 그 은혜와 사랑과 자비의 손을 붙잡으라(히4:16).

**2.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는 반드시 언약을 붙잡은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.**
**1)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의 구원도 시작되는 것이다(롬10:10)**
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접 기도를 하는 이유도 이것이다. 이 고백을 매일 해도 된다.
마음으로만 믿어도 되지만 입으로 고백해서 그 분이 참 나의 주가 되도록 허락하는 것이다(요1:12, 계3:20).
그 영접이라는 단어가 그 분의 사랑을 "받아들인다". "믿는다"는 뜻이다.
**2)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번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.**
정확히 말하면 나를 대속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을 계속 완성해가는 것이다(빌1:6, 빌3:12)
**그러면 이미 택함 받은 사울을 왜 버리신 것인가? 신학적인 난제이지만 구원받은 것이 무효가 된 것은 아니다.**
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었던 삶이 된 것이다. 그 결과는 비참했다. 그때 다윗이 보여준 자세가 중요하다. 훗날 악신에 들려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, 결국 전쟁터에서 죽은 사울 왕을 위해 울며 노래를 지었다(삼하1:7)
**3)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. 언제인가?**
**언약을 붙잡고, 믿을 때이다. 그래서 언약을 주시고 성취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예배가 중요한다(히11:6).**
**사울이 사무엘이 오기 전에 예배를 드린 것은 그의 불신앙에서 시작된 것이다. 사무엘이 정해진 기간에 오지 않으니 불안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고, 왕인 사울이 같이 흔들린 것이다.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였을 것이다.**
그때 왕다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데, 그것을 놓쳤다(13절 "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")
결국 예배의 형식은 있었는데, 언약도 놓치고, 믿음도 놓친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예배가 된 것이다.

**3. 우리의 예배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미션을 잡아야 한다.**
**1) 하나님은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, 우리를 축복해 모든 것이 증거가 되게 만드시겠다는 것이다.**
**그래서 하고자 하는 일이 뭔가?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, 모든 택한 자들을 살리신다는 것이다(전도와 선교)**
사울이 언약이 분명하고, 믿음을 회복했다면 이 전쟁은 이길 수 밖에 없는 전쟁이었다. 하나님이 망대가 되시고, 그리스도가 직접 싸우신다는 언약이 그것이다. 사울이 뒤늦게 깨닫고, 남은 600명을 가지고도 결국 승리한다(15절)
**2)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내게 증거를 주신다는 언약을 붙잡고, 미션을 찾아내라.**
하나님의 소원이 담긴 언약이 되고, 이유가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.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것이다.
가정에서, 교회에서, 직장에서 아무리 작은 일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이 되면 이유가 된다.
**그래서 예배라는 또다른 단어가 "헌신한다"("레이투르기아, 영어의 Service)는 의미이다.**
**3)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하는 나의 작은 기도, 헌신, 수고, 인내를 기억하신다고 했다(계2:2)**
특히 전도와 선교가 중요하다.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, 새 에덴에서 영원히 누릴 기업과 상급이 되는 것이다.

**결론**-십계명에 가장 우선적으로 주신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 곧 예배에 관한 계명이다.
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고,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가 된다. 참 예배 성공자의 삶을 누리기를 축복한다.